

野 통합 새정치연합 탄생 ... '일당 독점' 폐해 더 심해졌다

광주·전남 개혁공천 외면 ... 기초초·지방의회 물갈이 안 돼
후보자 확정도 미적 ... 정책·공약 검증 없는 '깜깜이 선거'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에서 야당의 '일당 독점' 폐해가 더욱 심해졌다. 이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예초 '안철수 신당'의 창당될 것으로 보여지면서 20여년 동안 이어진 광주·전남에서 민주당의 '일당 독점'이 깨질 것으로 기대됐지만,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전격적으로 합당, 새정치민주연합이 탄생하면서 그 폐해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광주·전남이 전통적 야권의 텃밭이라는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여전히 '꽃오면 된다'는 식의 경선으로 일관하면서 지역민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6·4 지방선거에서 개혁공천'을 강조한만큼 현역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대폭적인 물갈이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다.

또한, 새정지를 앞세운 안철수 공동대표가 당 지도부로 나서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만큼은 호남에서 과거처럼 '일당 독점' 폐해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광주지역 경선 결과와 전남지역 경선 진행상황을 보면 그 폐해는 더욱 커지고 있다. 아울러 광주의 경우 서구청장을 제외한 기존의 단체장이 모두 후보로 선정되고 현역 지방의원이 우세를 보임에 따라 '개혁공천'이라는 구호를 무색케 했다.

광주지역에 적용된 100% 공론조사 경선이 선거인단의 투표를 저조로 인한 대표성 논란과 함께 조직동원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면서 인지도와 조직에서 강한 현역들에게 모두 유리했기 때문이다.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경선 또한, 대부분의 지역에 100% 여론조사 경선이 적용되면서 인지도가 높은 현역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곳곳에서 '새정치'가 '도로 민주당'이라는 비난 여론이 쏟아졌고, 지역 국회의원들은 차기 총선을 염두에 두고 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오로지 '자기 사람 심기'에 여념이 없었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이보다 더 심한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자 확정 시기다.

과거 지방선거를 볼 때 최소 선거일 35일에서 40일 전에는 후보자가 확정 됐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옛 민주계와 새정치연합 계가 서로 공천 주도권 싸움을 하면서 광주의 경우 선거일 20여일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후보자 확정을 했고, 전남은 아직도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경선이 시작되지도 않았다. 이는 유권자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선거일을 코 앞에 두고 후보자를 확정할 경우 유권자들이 후보자와 그의 정책 공약 등을 충분히 검증할 시간이 없어 '깜깜이 투표'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방근 조선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렇듯 이 세력이 합당하면서 내부진통은 불가피하지만, 내부 경쟁관계를 통해 긍정적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번 공천 과정을 보면 모두가 구태의연하게 공천 주도권 싸움으로 일관하면서 정책경쟁 등은 뒷전이 됐다"면서 "호남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사실상 지역 유권자들만 이용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지 교수는 이어 "후보 선출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책을 제대로 내놓고 지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 최원기기자 cki@kwangju.co.kr

전남지사 후보 이낙연 확정 논란 김한길 "조사위 결과 보고 결정"

이낙연 의원
"경선 결과에 도민 뜻 반영
중앙당도 이를 존중할 것"

새정치민주연합 이낙연 전남도지사 후보의 당비대납 의혹에 따른 후보확정 문제와 관련, 김한길 공동대표가 "일단, 지방선거 김·경수사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의 보고를 받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3면>

더불어 이 후보측이 당비대납 의혹과 관련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관계자의 스마트폰속 1억원짜리 수표 6장 사진은 해프닝이라 주장하고 있어 검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대표는 12일 국회출입 광주지역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당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후보 확정 논란에 있어 현재 팩트(사실)를 정확히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현재 후보를 교체한다는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최고위에서 당비 대납 문제에 대해 제대로 알아봐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진

상조사위에서 보고를 받아 보자'라고 얘기된 상태"라고 밝혔다.

후보 공천 확정 시기와 관련, 김 대표는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5일 일괄적으로 공천장을 주게 되는 것이 아니라"며 "현재 하루, 이를 정도는 전국 기초단체장 공천 마무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

혀, 전남지사 후보 확정 논란은 후보 등록일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도 전남지사 후보 확정 논란과 관련, 이날 회의를 개최했지만 논란 끝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전남지사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이낙연 의원은 "검찰 조사를 받은 관계자의 스마트폰 수표사진은 지인들간에 선물로 주고받은 사진에 불과하며 당비대납 의혹은 경선 기간 내내 쟁점이 됐었고 이후 별다른 변동 사항도 없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경선 결과에 도민의 뜻이 반영됐으며 중앙당도 이를 존중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제34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둔 12일 오후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은 남구 주월동 봉주초등학교 학생 130여명이 오일영 령이 묻힌 묘지 앞에서 추모의 뜻을 담은 손편지를 쓰고 있다. 아이들이 쓴 편지는 유가족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5·18 기념식 대통령도 총리도 안온다

부총리급 참석 ... 안철수·김한길도 불참 '역대 가장 초라한 행사'

제3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역대 처음으로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참석하지 않는다. 1997년 5·18민주화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래 처음으로 부총리급이 참석할 예정이다.

5월 관련 단체 등도 정부의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 무산에 반발해 기념식 불참을 결정한 데 이어 김한길,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도 정부 주도의 기

념식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역대 가장 초라한 기념식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12일 국가보훈처가 광주시에 보낸 '제3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행사계획 송부'라는 제목의 공문에 따르면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리는 기념식 식순에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빠졌다. 그 자리는 기념공연이 대신하고 있다. 공문에는 이 같은 내용이 지난

8일 열린 제19회 차관회의에 보고됐다는 설명도 첨부돼 있다.

이와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가 처음으로 공식공문을 통해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불허하고, 기념공연(합창)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을 밝힌 것"이라며 "올해 기념식에는 대통령과 총리도 불참하며, 부총리급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역대 가장 초라한 기념식이 될 것

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1997년 5·18민주화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17년 동안 매년 기념식에는 대통령(8회) 또는 국무총리(9회)가 참석했다.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5년)동안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5·18 기념식을 모두 참석한 유일한 대통령이며,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각각 1차례씩 기념식에 참석했다. 나머지 해의 기념식은 국무총리가 대신했지만, 올해는 임기마저도 부총리급으로 격하될 예정이다.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도 오는 18일 정부 주관의 5·18 공식 기념식에는 불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기기자 lucky@kwangju.co.kr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학교설립 60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 **입학 476명** 구조 172명
▶ **실종 29명** 사망 275명
※ 세월호 참사 27일째
12일 오후 8시 현재 ▶ 관련기사 6면

프리미엄 로드샵 광주 총장점
GRAND OPEN!

HNT 하나투어
프리미엄 로드샵 광주 총장점
OPEN EVENT!

6월15일까지 이벤트 제공!

상담자대상	예약자대상
1) 두르드카페 무료 음료권 증정	1) 쌍당 최대 하나투어 50만 마일리지 적립! *일부 상품 제외
2) 휴대용 트래블백 제공	2) 필립스 전기포트 및 영화 예매권 제공
	3) 지역별 다채로운 특전 및 할인 제공

하나투어 마일리지 받고 다양한 혜택 누리기!

전세계 항공권/호텔/여행
여행/숙박/항공/입장권 등
자유여행 하나 Free상품
월드 원스탑서비스 제공

생활속에서 하나투어 마일리지 자유롭게 사용하기

문화/공연 예매 하나프리 Ticket
유지력/콘서트/연극/클래식 등
다양한 공연예매
하나투어 마일리지 클럽 회원 특별 혜택
CGV, 메가박스 영화에서 마일리지 사용

여행 전 하나샵
원스탑 여행준비 여행용품 쇼핑

여행 후 마일리지 쇼핑
해외특산물/가전/유아/식품/리빙 등
화려 우대 쇼핑

생활서비스 모바일 상품권
미트/와식/주유/영화/카페 등

미일리지 사용
http://mils.hanashop.com/hanacour/Mileage/

문의전화 062)228-1199 / 주소 광주 동구 불로동 113-1